

국문장편소설 <소현성록>을 통해 본 17세기 후반 놀이 문화의 일면*

허순우**

— <차 례> —

1. 서론
2. <소현성록> 속 놀이 문화의 양상
 - 1) 집 안팎에서 벌이는 소비적 놀이
 - 2) 사치품들을 수집하고 기르는 취미
3. <소현성록> 속 놀이 문화의 의미
 - 1) 이념에 의해 가려진 세속적 욕망과 취향 노출
 - 2) '소비'와 '취향'의 긍정으로 나아가는 상층 문화의 과도기적 일면 묘사
4. 결론

<국문초록>

고전문학과 예술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한 '놀이 문화'에 관한 연구, 그 중에서도 '유희 문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18세기 이후의 양상과 의미를 살피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많은 연구들이 18세기 이후의 놀이 문화가 앞선 시기보다 '상대적', 혹은 '본격적'으로 발달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과연 그보다 앞선 시기인 17세기 중후반의 놀이는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부터 18세기 이전까지에 해당하는 17세기 중후반이 '본격적인 조선 후기'로 가는 "전환기"에 해당한다면 그 시기 사람들이 인식했던 놀이 문화의 양상과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17세기 국문장편소설 <소현성록>을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작품에 서술된 놀이나 취미 등이 당대의 놀이 문화를 그대로 재현한

* 본 연구는 2014학년도 부산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신임교수연구정착금)에 의한 연구임.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것임을 확인하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았다. 대신 다양한 놀이나 취미들을 작품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상상하거나 수용하고 묘사할 수 있는 문화적 성향, 기호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그 양상은 어떠한 것이며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하였다. 2장에서는 작품에 서술된 놀이 문화의 양상을 “집 안팎에서 벌이는 소비적 놀이”와 “사치품들을 수집하고 기르는 취미”라는 두 항목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3장에서는 2장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소현성록> 속 놀이문화는, 작품 내적으로는 이념의 이면에 존재하는 세속적 욕망과 취향을 강하게 노출함으로써 작품의 결을 다양하게 형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작품 외적으로는 18세기 이후가 되어야야 조선사회가 사치와 향락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기존의 논의와 달리, 17세기 중후반의 상층 구성원들 또한 송겸(崇儉)의 절대적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 즐기려는 욕망을 지녔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주제어 <소현성록>, 놀이 문화, 놀이, 취미, 과도기, 검소, 사치, 욕망

1. 서론

노래, 춤, 음악, 세시풍속 등에 관한 연구가 일찍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취미의 향유 범주를 벗어나는 상당한 변화”¹⁾가 조선 후기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인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조선 후기의 문화는 더욱 많은 주목을 받는다. 그리고 고전문학과 예술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한 ‘놀이 문화’에 관한 연구, 그 중에서도 ‘유흥 문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18세기 이후의 양상과 의미를 살피는 것들이 다수이다.²⁾ 그런데

1) 안대희, 「조선 후기 취미생활과 문화현상」, 『한국문화』 60,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2, 68쪽.

2) 대체로 많은 연구들이 18세기 이후를 본격적인 조선 후기로 설정, 상업이 발달하고

많은 연구들이 18세기 이후의 놀이 문화가 앞선 시기보다 ‘상대적’, 혹은 ‘본격적’으로 발달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과연 그보다 앞선 시기인 17세기 중후반의 놀이는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부터 18세기 이전까지에 해당하는 17세기 중·후반이 ‘본격적인 조선 후기’로 가는 “전환기”³⁾에 해당한다면 그 시기 사람들이 인식했던 놀이 문화의 양상과 그러한 인식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국문장편소설 <소현성록>을 대상으로 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읽어보려 하였다.

<소현성록>은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 군의 초기작으로, 17세기 중후반(이하 17세기 후반)부터 향유된 작품이며⁴⁾ 국문장편소설 중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지는 작품이다. 또 15권 15책의 장편 분량 안에 당대의 놀이

소비문화가 확산되며 유흥문화가 발달한 시기라고 본다. 이우성, 『18세기 서울의 도시적 양상』, 『향토서울』 17, 1963; 이태진, 『18~19세기 서울의 근대적 도시발달 양상』, 『서울학연구』 4,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1995; 장진성, 『조선후기 사인 풍속화와 여가문화』, 『미술사논단』 24, 한국미술연구소, 2007; 정인숙, 『조선후기 도시의 발달과 여성의 소비문화에 대한 담론의 성격』,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 등 참조. 그리고 시기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조선 후기’로만 명명하고 구체적인 세기를 제시하지 않은 연구들의 경우 대부분 18세기 중후반, 19세기 이후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놀이, 유흥, 문화 등을 연구하였다. 조혜란, 『조선 후기소설에 나타난 유흥 서술 연구』, 『한국고전연구』 3, 한국고전연구학회, 1997; 이종목, 『조선 후기 놀이문화와 한시사의 한 국면』, 『애산학보』 34, 애산학회, 2008; 안대회(2012), 앞의 논문 등 참조.

- 3) “소설사에서 17세기는 전환기로 인식되곤 한다. 그만큼 이 시기 이후로 이전 시기의 작품들과 질적인 변화가 감지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민희, 『17~18세기 고소설에 나타난 화폐경제의 사회상』, 『정신문화연구』 32권 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129쪽.)
- 4) 선행연구에서는 대소설 <소현성록>을 필사했던 옥소 권섭의 어머니 용인 이씨의 생몰연대(1652~1712)와 생애를 검토하여 이 작품이 필사된 시기가 1686~1700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박영희, 『소현성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1993, 34~45쪽.) 필사 시기가 17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만큼, 작품이 창작, 향유된 첫 시기는 이보다 앞설 것이므로 연구자들은 <소현성록>을 17세기 중후반의 작품이라고 본다.

나 취미 등에 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므로 <소현성록>을 통해 17세기 후반 놀이 문화의 양상과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나름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⁵⁾ <소현성록>을 비롯한 국문장편소설이 중국을 시공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 소설에 묘사된 다양한 생활문화들을 조선의 것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⁶⁾ 그러나 소설이 허구성을 기본 속성으로 갖는 장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해도 그 것에 서술되어 있는 다양한 생활 문화들이 당대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하다.⁷⁾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작품에 등장하는 놀

-
- 5) 국문장편소설에 묘사된 놀이를 비롯한 문화적 요소들의 경우 “개인의 문집에 실린 여성의 놀이에 관한 기록은 한 개인에 국한된 특수한 성향으로 간주되기 쉽다. 반면 소설속에 형상화된 놀이들은 보편적 의미를 지닌 문화로서 읽힐 가능성이 높다.”(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여성의 놀이문화 연구, 『여성문학연구』 28,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293쪽.)
- 6) 선행연구에서는 국문장편소설 중에서도 사실성을 추구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판단되는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놀이 문화를 연구하기도 하였다. <유씨삼대록> 속 여성의 놀이문화를 고찰한 선행 연구(한길연(2012), 앞의 논문.)의 경우 “여타의 작품들이 80세 이상을 향유하는 것과 달리 <유씨삼대록>에서는 실질적인 주인공인 진양공주가 25세에 요절하며, 그 밖의 주요인물들도 40~60세 정도에 죽는다. 죽음에 대한 형상화를 통해 <유씨삼대록>이 조선 후기 당대의 문화를 실제로 가깝게 재현하려는 의식이 강한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유씨삼대록>을 통해 작품이 향유되던 당대의 문화를 읽어보고 더 나아가 상층 여성들의 고급한 놀이문화를 부각시켜, 조선시대 여성의 놀이문화를 재구해내는 토대로 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자료들을 역사기록과 관련지어 대웅시킴으로써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 7) 최대한 구체적으로 전달하려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소설의 특성상 완전한 사실적 묘사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정보전달을 토대로 하는 백과사전 유형의 글은 당대 실재했던 문화를 사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것 역시 해당 문헌을 작성하는 사람의 관심사, 사회적 지위, 경험의 폭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결국은 그러한 정보들을 종합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결과들이 도출될 것이다.

이나 취미 등이 당대의 놀이 문화를 그대로 재현한 것임을 확인하는 작업 보다는, 다양한 놀이나 취미들을 작품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상상하거나 수용하고 묘사할 수 있는 문화적 성향, 기호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그 양상은 어떠하며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해보려 한다.

<소현성록>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 문화 고찰에 앞서 고소설 속 놀이 문화에 주목한 선행 연구 결과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⁸⁾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나뉜다. 작품에 묘사된 놀이의 실상을 제시하고 그것의 문화사적 의미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춘 연구⁹⁾와 작중 놀이가 서사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연구¹⁰⁾가 그것이다. 연구의 초점이 문화사적 의미와 서사적 의미 탐색 중 어느 것에 더 맞춰져 있느냐의 차이에 따라 구분하긴 하였지만, 몇몇 연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연구들은 고소설 속 놀이나 유희 서술을 통해 당대의 문화적 특징을 읽어보려 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소설 속 놀이 문화가 갖는 문화사적 의미에 주목해본 연구들 역시 조선 후기 전반에 걸친 문화적 속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17세기 후반의 경향에 특별히

8) 고소설 속 놀이문화에 관한 연구서는 차충환·김진영(고소설에 나타난 놀이문화 연구 - <옥루몽>과 <옥선몽>을 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 24, 한국공연문화학회, 2012.)이 상세히 정리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큰 경향만을 제시하고 연구 논문은 각주로 달았다.

9) 이민희, 『고소설에 나타난 놀이의 서사적 성격과 놀이 문화』, 『열상고전연구』 30, 열상고전연구회, 2009; 차충환·김진영(2012), 앞의 논문; 한길연(2012), 앞의 논문; 서정민, 『고전 대하소설 속 비독문화의 특징과 의미』, 『국문학연구』 27, 국문학회, 2013 등.

10) 조혜란(1997), 앞의 논문; 조혜란, 『<옥루몽>의 서사미학과 그 소설사적 의미』, 『고전문학연구』 22, 한국고전문학회, 2002; 이민희, 『고소설 삼입 ‘놀이’의 서사적 역할과 의미 연구』, 『고소설연구』 25, 한국고소설학회, 2008; 정선희, 『장편기문소설의 놀이 문화의 양상과 기능』, 『한민족문화연구』 36, 한민족문화학회, 2011 등.

주목한 것들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문장편소설 <소현성록>을 대상으로 하여 작품에 나타난 놀이 문화의 양상을 검토해보고, 그것을 토대로 이 작품과 이것이 창작, 향유되었던 17세기 후반 문화가 지닌 특징의 일면을 살펴보려 한다.¹¹⁾

2. <소현성록> 속 놀이 문화¹²⁾의 양상

1) 집 안팎에서 벌이는 소비적 놀이

<소현성록> 속 놀이는 집 안팎에서 두루 행해진다. 놀이는 최소 2인이상이 모인 자리에서 진행되며, 동년배의 놀이, 세대를 초월한 놀이 등이 다양하게 등장한다. 그 중 소규모 놀이이면서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이 바둑과 투호이다. 바둑 놀이의 양상에 관해서는 선행연구¹³⁾에서 자세히 다뤘으므로 본 발표에서는 투호 놀이를 검토해본다.

11) 연구 대본으로 활용하는 <소현성록>은 이화여자대학교 소장본 15권 15책이다.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역 본문(조혜란·정선희·허순우·최수현 역주, 『소현성록』 1~4권, 소명출판사, 2010.)을 활용하고 인용문 끝 부분에 고전 원문의 권과 쪽수를 밝힌다.

12)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놀이 문화”라는 용어는 놀이와 취미라는 하위 대상을 포괄하는 것이다. “놀이”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이 재미와 즐거움을 얻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이고 “취미”의 정의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즐겨 하는 일.”이다. ‘즐거움’이라는 요소를 공통 속성으로 지닌 이들 어휘를 엄격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다만, 놀이는 행위를, 취미는 정서나 기호를 드러내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두 가지를 구분하여 서술하려 한다. 그리고 소설에 묘사된 이들 놀이와 취미는 각주 5)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개개인의 문집에 실린 것은 한 개인의 특수한 성향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소설 속에 형상화 된 것은 보편적 의미를 지닌 문화이자 인식 차원에서라도 사회적으로 공유된 것으로 일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13) 서정민(2013), 앞의 논문, 35~53쪽 참조.

형 참정과 부인이 자리에 앉아 있고 곁에는 다섯 아들이 모시고 있었다. 그 옆으로 붉은 치마, 비취색 적삼의 여자 여덟 명이 늘어서 있었는데, 위로 일곱은 모두 혼인한 여자이고 앉아 있는 여자는 13-4세 정도 되는 처녀였다. (중략) 그런데 갑자기 위에 앉아 있던 젊은 여자가 일어서며 말하였다.

“동생 강아가 부인네처럼 앉아만 있네요. 오늘 우리 부모, 형제가 모였으니 투호(投壺) 놀이를 하여 승부를 겨뤄 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미인이 붉은 입술을 열어 나직이 말하였다.

“제가 본래 잡기(雜技)를 못합니다. 여러 언니들이 계시는데 어찌 구태여 나를 부르십니까?”

그 젊은 여자가 말하였다.

“강아 너는 우리와 형제 사이인데도 늘 어려워하여 사양하느냐? 너처럼 묘한 손재주로도 사양하면 어느 형들이 투호를 치겠느냐? 너는 평소 좋아하는 것이 『주남(周南)』·『소남(召南)』 등의 『시경(詩經)』과 『효경(孝經)』뿐이구나. 형제가 모인 때에 이런 좋은 일을 앓고 무엇을 하라?”

형 참정의 부인이 웃으며 말하였다.

“여러 며느리들은 우리가 있으니 어려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라도 미루어 사양하지 말고 경아와 투호를 쳐라.”

그 미인이 명을 받들어 일어섰는데, 몸이 날아갈 듯하고 패옥(佩玉) 소리가 쟁쟁하며 가는 허리와 날렵한 기질을 지녔다. 그러면서도 단엄하고 침착하여 서리와 달 같은 풍모와 시슴이나 용 같은 거동이 천고(千古)에 빼어났다. 세 치의 발걸음을 바람 부는 곳 앞으로 옮겨 섬섬옥수(纖纖玉手)로 금화살을 희롱하니 소리가 낭자하였다. <소현성록> 5권 64~66면.

<소현성록>에서 투호는 부모와 자녀, 시부모와 며느리, 할머니와 손자, 여성 동기들이 여가에 즐기는 놀이이며 특히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즐기는 놀이이다. 특별한 요구조건이 있는 내기 형식을 띠기도 하고, 조건은 없는 승부 겨루기로 진행되기도 한다. 어른이 직접 투호에 참여하기도 하

지만,¹⁴⁾ 대체로는 젊은이들이 투호를 하면 어른들은 그것을 보며 즐긴다. 투호를 던지는 사람이 있고, 살을 줍는 사람이 있으며¹⁵⁾ 주로 서당이나 내당의 방 안에서 투호 놀이를 한다.¹⁶⁾ 투호는 인용문에서처럼 『시경(詩經)』, 『효경(孝經)』 등의 책을 읽는 것과는 대비되는 “잡기”로 언급되지만, 잡기에 능한 것을 재미있어 하고 긍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현성록>에서 정숙하고 덕스러운 부인으로 묘사되는 석 부인도 적국인 화씨, 며느리들 등과 함께 자연스럽게 투호를 즐긴다. 또 예문에서처럼 투호놀이를 할 때는 주변 상황을 헤아릴 겨를도 없이 놀이 자체에 빠져들어¹⁷⁾ 한껏 즐기는 흥겨운 분위기가 연출되며, 투호 놀이의 도구도 금 살과 같이 화려한 것을 사용한다.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화려한 도구를 활용하는 놀이이지만 소현성과 같이 엄격한 인물도 여성들이 놀이판 벌이는 것을 억눌렀던 회포를 푸는 일상적인 행위로 이해하며 문제 삼지 않는다.¹⁸⁾

14) 운성이 투호(投壺)를 가지고 나오며 웃으며 말하였다.

“할미는 나와 함께 승부를 겨루게나.”

석파가 운성의 말을 좇아 투호살 을 잡으며 말하였다.

“승부에 무슨 내기를 하시렵니까?” <소현성록> 9권 59쪽.

15) 다음 날 아침에 석소저가 시어머니께 문안을 마치자, 양부인이 두 딸에게 투호(投壺)를 하게하고 화씨와 석씨에게 화살을 주우라고 하셨다. <소현성록> 2권 63쪽.

16) 하루는 화부인과 석부인이 세 며느리에게 투호(投壺)를 치게 하였는데, 모두 형씨에게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자 화부인이 웃으며 말하였다.

“형씨가 잡기(雜技)를 묘하게 잘 하니 진실로 운성의 배필이로구나.”

말이 끝나기 전에 석파가 소영을 이끌고 나와 석부인에게 아뢰었다. (중략) 소영이 나가 돛자리 앞에서 네 번 절하고 난간 밖에 앉았다. 형씨가 기색이 태연하여 혼쾌히 절을 받고 모든 동서와 함께 말씀하는데, 유순하고 편안하며 은화한 기운이 온 자리에 쏘였다. 그러니 태부인이 칭찬하고 석부인이 애증함은 비길 데가 없었다. <소현성록> 5권 92~93쪽.

17) 인용문은 소운성이 서당 안으로 들어가 열린 문틈으로 형 씨 가족들의 투호놀이를 엿보다가 형 소저에게 반하는 장면의 일부분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장편가문소설에서 놀이는 놀이 그 자체를 위해서 행해지기 보다는 어떤 서사적인 기능을 위해 행해지는 경우가 더 많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은 남녀의 결연을 매개한다는 것이다.”¹⁹⁾라고 하여 ‘결연 매개’로서의 ‘투호’의 성격에 주목하였다. 그런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따르도록 유도하거나 결연을 매개하기 위해 내기를 겸한 잡기(투호나 바둑)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비롯하여 많은 경우, 서사적 기능에 대한 고려 못지않게 놀이 자체의 흥겨움과 화려함을 묘사하는 데에도 공을 들인다. 그러니 서사적 기능 여부를 떠나 하나의 장면을 구성하기 위해 투호 놀이를 선택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그려내는 방식을 통해 향유층의 기호나 취향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²⁰⁾ 이는 아래에서 살펴볼 다른 놀이나 취미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18) 이날 여러 자매들이 모두 속마음을 말한 후 위씨와 형씨 등을 모셔 투호 놀이를 하였는데, 맑은 음성이 집안에 가득하고 웃음소리가 만발했다. 이때 소승상이 아들들과 함께 부용당에서 경치를 감상하고 있었다. 벽이 막혀있어 소승상이 온 줄도 모르고 여인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니, 이것을 듣고 소씨 형제들이 말리려 하자 승상이 말했다.

“아녀자들이 방 안에서 울적하게 지내다가 자매들끼리 모여 즐기는 것은 평범한 일이다. 어찌 말리려 하느냐? 며느리들이 내가 온 줄 알면 편하지 않을 것이니 서당으로 가야겠다.”

승상이 아들들과 함께 서당으로 돌아갔다. 소승상의 관대하면서도 어진 것이 이와 같으니 비록 엄하며 절도 있는 것도 남보다 뛰어나지만 또한 덕이 두터우므로 모든 자녀·며느리들이 다 두려워하면서 정성으로 모셨다. 태부인 또한 매우 관대하게 집안을 다스리니 모든 젊은이들이 매우 한가하게 세월을 보냈다. <소현성록> 13권 140쪽.

19) 정선희(2011), 앞의 논문, 189쪽.

20) 인용한 투호 장면은 훗날 소운성의 처가가 되는 형 씨 집안에서 벌어진 것으로 <소현성록>의 중심 가문인 소 씨 집안 구성원들의 투호 놀이를 묘사한 장면은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소 씨 집안 구성원들의 놀이 문화에 대한 인식 고찰이 아닌, 17세기 후반의 장편소설 향유층이 공유했던 놀이 문화에 대한 인식의 일면을 살펴보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 소 씨 가문 이외의 가문 구성원들이 벌이는 놀이에 대한 내용도 논거로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살펴볼 놀이는 ‘연회(잔치)’이다.

조정 대신들과 부인들이 황제의 명으로 자운산에 이르러 잔치에 참여하였는데, 그 성한 위엄과 따르는 사람들이 남문(南門)에서부터 자운산에 이어서 40여 리에 메었고 진수성찬이 산같이 많았다. 장헌동 백 리를 둘러 비취색 장막이 구름에 닿았고 햇빛 가리개가 흰 구름을 반쯤 덮었으며, 무수한 창녀(唱女)들이 다 모이니 화려한 저고리와 붉은 치마가 해를 가리고 풍악 소리가 높은 하늘을 뒤흘들었다. 이렇듯 이 날의 번성함은 만고(萬古)에 비길 데가 없었다. 소승상이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이 크므로 사양하는 일이 없었지만 오늘은 눈썹에 즐거운 빛이 없이 억지로 관복(官服)을 입고 여러 아들과 함께 손님들을 맞아 응대하여 집 안으로 모이니 그 수가 만여 명이 었다. (중략) 그 후 연이어 3일 동안 크게 잔치를 열어 즐기니 양부인과 석부인의 복을 부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었다. <소현성록> 15권 8~18쪽.

<소현성록>에는 크고 작은 연회(잔치), 모임 등이 십 수 차례 등장한다. 과거급제, 결혼, 생일 등을 기념하는 잔치는 물론이고, 인용문과 같이 양로연(養老宴)도 별인다. 조선시대 양로연은 왕이나 왕비가 80세 이상의 노인들 대상으로 하여 음력 8~9월의 좋은 날을 가려 궁중에서 시행한 잔치로, 왕은 노인들에게 음주가무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채와 포육(脯脩)을 선물하였으며 양로연에 참가한 노인들의 관등을 올려주기도 하였다.²¹⁾ 양로연은 왕과 왕비가 몸소 양로를 실천함으로써 유가의 기본 정신인 ‘효’가 백성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는 행위였다.²²⁾ 그런데 <소현성록>에서의 양로연은 ‘효’를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21) 박수경, 『선조 양로연의 사상과 공연양상 고찰』, 『한국음악사학회』 30, 한국음악사학회, 2003; 하을란, 『조선후기 양로연의 양상과 특징 : 영, 정조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22,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5 등.

22) 박수경(2003), 앞의 논문, 341쪽.

도 하지만, 이 잔치 장면을 통해 독자는 소씨 가문의 위세는 물론이고 <소현성록> 향유층의 사치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예법에 맞는 양로연 절차, 혹은 예에 대한 서술은 거의 없고, 잔치의 성대함을 보여주는 묘사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²³⁾

세종 14년에 왕이 양로연을 벌이려 하자 황희가 연로하여 거동이 불편한 부녀의 대궐 출입을 염려하면서 술과 고기를 당사자의 집으로 내려 주자고 청하는 것으로 보아,²⁴⁾ 궁중이 아닌 사가에서 국가의 명에 따라 양로연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던 듯하다. <소현성록>에서도 황제가 84세가 된 양부인을 위해 따로 잔치 물품 등을 하사한다. 그런데 <소현성록> 속 양로연은 황제가 술과 고기와 선물을 내려 효의 정신을 표하는 것 이상의 성대한 잔치로 묘사되고, 절차에 대한 서술보다는 외적 화려함을 드러내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황제는 “창고에서 금은을 내어 각각 황금 수

23) 양로연의 경우 천자가 베풀어준 공식적 행사에 속하기 때문에 작품 향유층의 놀이에 대한 사치 추구 성향을 읽기 부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양로연 자체는 공식 행사일지라도 그 놀이적 행사를 바라보고 묘사하는 중심 시선이 어느 부분에 맞춰져 있는가에 따라 작품 향유층의 사치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양로연 장면을 살펴보았다. 양 태부인을 위한 양로연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주제적으로 “효”를 강조하는 행사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잔치의 앞, 뒤에 기술된 내용(소현성은 양 태부인의 양로연에 앞서 황제와 황후가 자신의 생신연을 벌이겠다고 하자 “만약 음식과 풍류로 나를 대접했다가 나중에 어지러운 시비가 일어나 황후의 사치스러움과 나의 분수 알지 못함을 책망 받으면 이는 도리어 큰 불효입니다.”라고 응답한다.), 절차보다 규모를 드러내는 데 집중된 서술방식, 그리고 작품의 결말부쯤에 이르러 가문의 혁혁한 권세를 강조하는 국문장편소설의 특징들을 고려하면 국문장편소설 향유자들이 양로연 장면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또 다른 의미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24) 世宗 14年(1432) 8月 14日, (전략) 황희(黃喜)가 아뢰기를 “부녀로서 연로한 자는 거동하기가 어려우므로 대궐 안에 출입하기가 불편할 것 같사오니, 마땅히 술과 고기를 그 집에 내리어야 될 것입니다.” 하니(후략).(黃喜曰 婦女年老者 難以舉動 闕內出入 似乎未便 宜賜酒肉於其家). (원문 및 본문은 한국고전번역원의 『조선왕조실록』에서 인용.)

천 냥과 백금 3천 냥, 축나라 비단 1만 필 씩을 연로한 사람들의 자식에게 주어”²⁵⁾ 잔치를 하라고 명한 후 소부에는 더 큰 잔치를 따로 배설하라는 명을 내린다. 성 남문에서부터 소부가 있는 자운산까지 40여 리를 만여 명의 축하객이 가득 메우고, 수많은 창기와 이원(梨園)의 악사들이 풍악을 연주하는 화려하고 성대한 잔치가 3일 동안 계속된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한 명사들, 자손들의 빼어남을 길게 나열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차림이나 축하 인사 방법 등과 같은 소소한 예절보다는 성대하고 화려한 잔치의 규모를 보여주는 데 집중하는 것이다. 양로연 잔치가 끝난 후 소현성이 어머니 양 태부인에게 “황제의 은혜가 너무 크고 범사에 외람되니 실로 왕실의 친척됨이 괴로운 줄을 오늘에야 깨달았다”²⁶⁾라고 하소연하기도 하지만 그 말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러구러 무궁한 세월동안 영화를 누리며 여러 아들들이 각각 자녀를 다 혼인시켰다. 승상이 나라에서 내리는 은총은 사양했지만 아들들의 효성스런 뜻은 차마 막지 못하여 장수를 바라는 잔치를 여러 번 받았다.”²⁷⁾라는 내용인 것을 볼 때 <소현성록> 향유층의 연회에 대한 관심은 그것의 성격이나 의미 혹은 구체적인 절차를 이해하는 것보다 외적인 화려함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투호나 연회가 집 안 공간에서 진행되는 놀이라면 뱃놀이나 유산(遊山)은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놀이이다.

(가) 하루는 어사 윤경, 한림 윤희, 시랑 윤현, 오공자 윤몽, 육공자 윤의가 상서 윤성과 더불어 완룡담 근처에 나와 배를 아름답게 꾸며서 띄우고 뱃놀

25) <소현성록> 15권 7~8쪽.

26) <소현성록> 15권 18~19쪽.

27) <소현성록> 15권 19쪽.

이를 하였다. 이때는 여름의 끝이요, 가을의 초입이었다. 무수히 짙은 푸른 빛 모래는 용담을 둘러 있고 붉으며 하얀 연꽃은 푸른 나뭇잎 사이에서 솟아 있었다. 남풍이 불어오자 향기가 전해오니 많은 골짜기와 산 가운데에 경치가 맑고 깨끗하여 문인재자(文人才子)의 흥이 높았다. 소씨 형제들이 잔에 따른 술을 내오고 <채련가(採蓮歌)>를 불렀다. 이때 운성이 뱃전을 두드려 맑은 운치를 느끼게 하는 시를 읊는데 소리가 맑고 깨끗하여 규방에 있는 과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듯, 학의 무리가 교룡을 춤추게 하는 듯, 낭랑한 소리가 끝없이 긴 하늘에 어리니 모든 생들이 마음이 취한 듯 앉아있었다. <소현성록> 9권 8~9쪽.

(나) 이때가 늦봄 초순이었다. 형 참정이 아들과 사위를 거느리고 변하에 배를 띄우고 고기를 잡고 놀고자 하였다. 형 한림이 소운성을 찾아보고 함께 가자고 하였는데 운성이 머리를 흔들며 말하였다.

“근간에 관아에 일이 많고 연일 진법을 연습하니 어찌 강정에서 뱃놀이를 할 길이 있겠는가?”

형 한림이 거듭 권유하였으나 상서 소운성이 응하지 않고 다만 큰 배 한 척을 주어 가서 놀라고 하자 형 한림이 매우 섭섭해 하며 말하였다. (중략) 형 한림이 돌아와 형 참정에게 말하니 또한 곧이듣고 드디어 손생을 불러 말하였다.

“소병부가 가지 않는다고 하니 너는 나와 함께 경치를 구경하겠느냐?”

손생이 운성은 가지 않는다는 것을 듣고 기뻐하며 허락하고 함께 변하에 다다랐다. 흰 비단 같은 강물은 하늘을 대하였고 채선(彩船)은 기세 좋게 떠 있어 경치가 문사(文士)들의 흥을 도왔다. 형 참정이 배를 강의 중간에 흐르도록 띄우고 술과 안주를 성대히 마련하며 풍악을 울리도록 하자 고운 옷을 입은 기생의 그림자가 강물 속으로 떨어지고 노란 옷과 붉은 치마가 바람에 나부끼니 아름다운 팔을 놀려 술을 마시고 있었다. 시간이 오시(午時)는 되었다. <소현성록> 9권 68~69쪽.

<소현성록>에는 공무(公務)가 아닌 놀이 목적으로 배를 타는 장면이 2회 등장한다. 인용문 (가)와 (나)에 서술된 소 씨 집안 형제들의 완룡담 뱃놀이와 소운성의 처가인 형 부(府) 남성들의 변하 뱃놀이가 그것이다. 각각의 뱃놀이는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것처럼 서사적으로 볼 때 인물의 성품을 확인하는 계기로 작용한다.²⁸⁾ 완룡담 뱃놀이에서는 소운성의 영웅적 풍모와 빼어난 재주가 드러나게 되고 변하 뱃놀이에서는 호방하고 거침없는 소운성의 성품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는 셋째 아들인 소운성이 소씨 가문의 가부장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여주는 나름의 서사적 장치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인물의 성품을 확인하는 장면을 그리기 위해 특별히 ‘뱃놀이’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완룡담 뱃놀이는 인용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문인재자들의 놀이로 설정되었으므로 기생이나 악공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섯이나 되는 형제가 “배를 아름답게 꾸며서 띄우고 뱃놀이”를 하며 술을 마셨다는 내용을 볼 때, 조출하고 소박한 놀이를 묘사하려 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만약 이 선유가 금욕적인 선비들의 조출한 놀이임을 강조하고 싶었다면 굳이 배를 꾸몄다는 표현을 덧붙이기보다는 놀이의 고상함과 금욕적인 측면을 부각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형 부 구성원들과 소운성이 함께 즐기는 변하 뱃놀이는 아예 기생과 악공을 대동한 화려한 놀이로 묘사되는데, 그 놀이에 필요한 배를 소운성이 제공하였다는 내용도 덧붙여 있다. 배를 화려하게 꾸미고 기생과 악공을 대동하며 노는 값비싼 유흥²⁹⁾을 즐기는 장면이지만, 작중 인물

28) 정선희(2011), 앞의 논문, 197~200쪽.

29) 18~19세기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조희룡은 기생과 악공을 대동하고 서호에서 3일 동안 뱃놀이를 하는 데 ‘삼만 전’을 허비한 후 ‘쓸데없는 비용이 적지 않게 든 것을 한탄하는 글’을 남겼다. 또 1778년 정조에게 보고된 장계에서도 당시 놀이가 지나쳐 한량들이 장소 비용만으로 3, 4만전의 거액을 소비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였다.(장진성

이나 서술자 모두 뱃놀이의 사치를 문제 삼지 않는다.

이때에 천자(天子)께서 남문(南門) 밖에 나와 사냥하시고 활쏘기를 연습 하셨다. 이는 자운산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여서 소씨가 양부인에게 알려 말하였다.

“임금께서 사냥하시는 행사가 크게 열린다 하니 저는 화씨와 함께 마땅한 곳을 잡아 구경하러 합니다.”

부인이 말하였다.

“그것이 뭐 어렵겠느냐? 나도 과부로 지내게 된 후에는 마음을 호화로운 것에 두지 않았으나, 경과 한생이 반열(班列)에 참석하는 것을 보러 나도 가겠다.”

상서가 모친께서 가려 하시는 것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원래 양부인은 밤낮으로 근심하며 슬퍼하여 즐기지 않았는데 오늘은 화려한 것에 뜻을 두심을 보고, 하나의 경사를 얻은 듯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구경할 곳을 잡아 드리니 소씨가 양부인을 모시고 석과 등을 거느려 갔다. 화씨는 처음에는 함께 가려 했으나 석과가 가는 것을 보고 병을 핑계로 물러나니 양부인이 구태여 권하지 않고 딸과 함께 숙소에 이르러 천자의 거동을 기다렸다.

이때에 문득 특별히 위엄 있는 행차가 길을 덮고 금으로 장식한 덩을 옹위하여 소상서 집 숙소로 들어오려 하였다. 소부(蘇府)의 하인이 문을 막으니, 그 종과 집안사람들이 어지러이 다투어 말하였다.

“석 상서 댁 부인과 소저가 구경하러 오셨는데 너희 등이 어찌 감히 막느냐?”

석과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시녀로 하여금 다투지 말고 저 행차를 들어오 시게 하라고 전하게 하니, 소부의 하인이 비로소 문을 열었다. <소현성록>, 2권 29~30쪽.

사치스러운 바깥 놀이를 즐기는 것은 여성인물들도 마찬가지이다. 양

(2007), 앞의 논문, 275~276쪽 참조)

태부인을 비롯한 소부 여성들은 황제가 거동하는 것을 보기 위해 구경을 나갔다가 그 곳에서 소운성의 둘째 부인으로 염두에 두고 있던 석 소저를 만나 선을 보게 된다. 구경을 나왔던 두 집안 여성들의 숙소가 우연히 겹친 것이다. 숙소까지 정해서 황제의 거동을 구경하는 이런 놀이는 인용문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듯이 “화려한 것”, “호화로운 것”을 즐기는 놀이에 해당한다.³⁰⁾

사족 부녀들이 왕의 행차를 구경하기 위해 숙소를 정하고 밤을 보내는 “관광 풍습”은 조선 초기부터 있었는데, 국가에서 여러 차례 그것을 금하려 했지만 쉽게 근절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여성들의 관광을 금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한껏 치장한 가마를 자랑하고 화장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다니는 사족 여성들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³¹⁾ 또 여성들이 밤을 새 관광을 하는 것이 안전하지도 않거니와 사치와 실행을 일삼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하여 종종 임금 때에는 실제로 부녀들의 관광이 금해지는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³²⁾ 그러나 부녀들의 구경은 이후로

30) 호화롭고 화려한 것은 “황제의 행차를 가리키는 것”으로 “소 씨 집안 여성들의 화려한 외출로 읽는 것은 오독”이라는 심사위원의 지적이 있었다. 호화롭고 화려한 것이라는 표현이 황제의 행차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여성들이 금 덩을 타고 길을 덮을 만큼 큰 행렬을 이루며, 숙소를 정해 밤을 보내며 관광을 한다는 작품 속 서술, 그리고 이어지는 문단에서 서술한 것처럼 가마를 치장하고 짙은 화장을 하며 관광을 즐겼던 여성들의 놀이를 비판했던 소설 밖의 사건들을 고려할 때, 작품 속 여성들의 관광을 화려하고 호화로운 놀이로 읽을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건을 논거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가 앞서도 말하였듯이 소 씨 집안 구성원들의 놀이에 대한 인식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작품 전반에 걸쳐 드러나는 작품 향유층의 놀이 문화에 대한 인식의 일면을 보는 것인 만큼, 여성들의 관광에 관한 서술을 통해 당시 향유층이 체험했던 혹은 추구했던 놀이 문화를 엿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31) 정지영, 『조선시대 부녀의 노출과 외출 : 규제와 틈새』, 『여성과 역사』 2, 한국여성사학회, 2005, 159~161쪽.

32) 中宗 6年(1511) 8月 28日, 사족(士族) 부녀자들의 관광(觀光)을 엄금하였다. 경연관

도 그치지 않아 문제가 되었는데,³³⁾ 17세기 후반의 소설인 <소현성록>에도 여전히 부녀들의 관광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2) 사치품들을 수집하고 기르는 취미

전통적으로 유가에서는 물질적 쾌락이나 탐닉을 경계했다.³⁴⁾ 성리학자들은 다양한 욕망을 절제하고 도를 추구하며 작은 물건에 기호를 갖는 것도 경계하는 금욕적인 태도를 긍정적인 것으로 여겼다.³⁵⁾ 그러나 18~9세기가 되면 서화를 비롯한 각종 예술품에 대한 관심 증대와 탐닉의 풍조가 심화된다.³⁶⁾ 비록 ‘취미’로 명명되지는 않았지만 18세기 이전에 창작된 17세기 작품 <소현성록>에도 예술품이나 새, 꽃, 서적 등을 수집하고 기르는 일에 대한 묘사가 곳곳에 있어 작품 향유층의 취미에 대한 관심을 살

(經筵官)의 말에 따른 것이다.(命嚴禁士族婦女觀光者, 從經筵官之言也.)

33) 宣祖 39年(1606) 4月 8日, 비망기로 우승지 송준(宋駿)에게 전교하였다. “듣건대 세 번째 습의하던 날 성안의 남녀들이 온통 쏟아져 나와 길 양편에서 멋대로 구경을 했는데, 사족(士族)의 부녀자들이 타고 온 가마가 즐비했으며 화장을 질게 하고 상민과 뒤섞여 있었다고 하니 경악할 일이다. 부인의 도는 낮에도 뜰에 나다니지 않고 규문(閨門) 안에서 날을 보내는 법인데, 어찌 교외(郊外)에 나가 보고싶은 대로 구경하며 나돌아다닐 수 있던 말인가. (중략) 영조일(迎詔日)에 구경하는 부인들은 사족이나 하천배를 막론하고 일체 통렬히 금하고, 이를 범할 경우 사족은 가장(家長)을 치죄하라고 예조와 도감에 이르라.”(以備忘記傳于右承旨宋駿曰 聞 三度習儀之日, 傾城士女, 夾路縱觀, 士族之婦, 馱輻連亘, 或有艷粧冶容, 混處無別, 可駭可愕. 婦人之道, 晝不遊庭, 及日乎閨門之內, 豈有出郊外, 縱目遊觀之理. 雖下賤之婦, 豈宜駢坐於道傍, 白晝觀光. (중략) 迎詔之日, 婦人觀光者, 勿論士族 下賤, 一切痛禁. 犯者, 士族則家長治罪, 言于禮曹 都監.)

34) 예를 들어 『서경』의 <오자지가(五子之歌)>에서는 “안으로 여색에 미혹되거나, 밖으로 사냥에 빠지고, 술과 풍악에 탐닉하거나, 큰 집을 짓고 담장을 세기는 것, 이 중에 한 가지 일만 있어도 망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內作色荒 外作禽荒 甘酒嗜音 峻宇彫牆 有一於此 未或不亡.)”라고 하여 탐닉과 사치를 경계하였다.

35) 안대회(2012), 앞의 논문, 69~70쪽.

36) 강명관, 『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공간』, 소명출판, 1999, 317~340쪽.

펴볼 수 있다.

(다) 이로부터 별호를 소소부(蘇巢父)라 하니 그 청렴하고 고결하며 어짙을 알겠다. 처사가 벼슬을 그만두고 골짜기 가운데서 한가롭게 지내면서 학을 춤추게 하고 거문고를 타며 천자의 자리를 헨 신 보듯 했으며 때로는 나귀를 타고 천하를 두루 보며 때로는 작은 배를 만들어 사해에 떠다녔다. <소현성록> 1권 5쪽.

(라) 새벽을 알리는 북이 울리면 일어나 세수하고 아침 문안을 드리고 대궐에 가서 조회에 참석한 후 어머니께 하루 세 때 문안하고 서당으로 가서 향을 피우고 옷매무새를 바르게 하여 종일토록 단정하게 앉아 사서를 공부하고 예법을 연구하였다. 그러니 집안사람들이 화씨에게 정이 별로 없는 게 아닌지 매우 의심하였으며 양부인 또한 염려하여 석과를 불러 말하였다. (중략) 석과가 그 말을 받들어 직사가 있는 곳을 찾아 서헌 백화정에 이르렀다. 두 쌍 동자가 난간 밖에서 학을 길들이고 있고, 구슬로 만든 발을 높이 걸었는데 향로의 향내가 그윽했으며 주변에는 만 권 경서를 쌓아놓고 거문고를 비스듬히 세워 두었다. 몸이 마치 신선의 공간에 오른 듯한 곳인데 생이 책상에 『주역』을 펴놓고 자미수(紫微數)를 점치고 있었다. 그윽한 대청 가운데 발 그림자가 몽롱한데 생의 백옥 같이 흰 살쩍과 복숭아 같이 붉은 입술은 분명 신선이 꽃과 나무 가운데 떨어진 것 같으니 석과가 새삼 사랑스럽고 감탄하여 고꾸라질 듯 다가가서 웃으며 말하였다. <소현성록> 1권 53~54쪽.

위의 두 인용문에는 소현성과 그의 아버지 소광의 취미와 취향을 엿볼 수 있는 어휘들이 들어있다. 인용문에서 서술자는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처사의 삶을 사는 소광과 사서를 탐구하고 예법에 따르는 삶을 추구하는 소현성의 태도에 주목한다. 그리고 청렴하고 검소하며 소박한 옷을 입고 사람 사귀기를 자제하며 글 읽는 것을 평생의 일로 삼는 그들의 삶을 ‘고

결하고 어진’ 것이라고 추켜세운다.³⁷⁾ 그런데 세속적인 영화에 얽매이지 않는 그들의 삶을 꾸며주는 주변적인 것들이 눈길을 끈다. 학을 기르는 것, 향을 피우는 것, 만 권의 경서를 쌓아두는 것 등은 인용문에서 석과가 소현성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들의 군자다운, 혹은 신선과도 같은 고결한 생활 태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수식어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취미는 ‘검소’나 ‘소박’이라는 어휘와 어울리지 않는다.

학은 유가와 도가에서 각각 현인과 신선을 상징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성껏 키우는 행위는 고상 것에 해당하였다. 특히 학과 매화와 함께 서호의 고산에 칩거했던 임포의 이야기는 문인적 삶의 귀감으로 인식되어 조선에서도 다양한 그림과 글로 재탄생되었다. 조선 전중기에 임포의 고사를 변주한 그림이나 글의 경우 그 초점은 “방학(放鶴)”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³⁸⁾ 그러던 것이 학의 사육과 애완풍조가 확산 되면서, 학은 탈속적 이미지뿐 아니라 문인들의 거처나 은거지에 놓인 완상 대상으로서의 이미지를 획득³⁹⁾하게 되는데, <소현성록> 속 학의 이미지도 또한 그러하다. 조선시대의 기록에 따르면 현실에서 학의 가격은 매우 비싸고 양육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으며 심지어 학을 키우는 전문가를 두어야 할 정도로 호사스러운 취미에 해당⁴⁰⁾하였다고 하니, 동자를 두고 학

37) (소현성이:필자) 지위가 정승에 이르렀는데도 청렴하고 검소하여 입은 옷이 소박하였고 성품이 조용하여 사람들 사귀는 일을 그쳤다. 그러니 평생토록 친구가 십여 명을 넘지 않았다. 또 여자를 꺼려 매일 외당에서 향을 사르고 글을 읽어 문장의 이치를 깨닫는 데 더욱 힘쓰셨고, 행실을 닦아 맑은 도학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소현성록> 1권, 1~2쪽.

38) 박정애, 『조선 후기 회화에 나타난 鶴의 이미지와 표현 양상』, 『미술사연구』 26, 미술사연구회, 2012, 112쪽.

39) 박정애(2012), 위의 논문, 115~116쪽.

40) 고연희 “선비와 鶴… 마주한 두 시선의 맑고 깨끗한 교감이어”, <문화일보> 2013년 1월 11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11101033130025002>)

을 길들이도록 한 소현성의 취미 역시 탈속적인 것으로만 바라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다.⁴¹⁾ 만 권 장서역시 마찬가지이다. 만 권의 경서는 소현성이 다른 것에 눈을 주지 않고 학문에 힘쓰는 바른 선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동원된 소재이다. 그러나 대규모 장서를 수집하고 보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력과 일정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⁴²⁾을 고려한다면, 소현성의 삶이나 취향이 검소하고 소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서재를 구성하는 소도구들인 구슬로 만든 발, 향기를 뿜는 향로, 비스듬히 놓인 거문고 역시 그러하다. “한양이나 그 근교에 마련한 정원이나 서재에서 향을 피우고 차를 마시면서 시문, 서화와 음악을 즐기고 서책, 분재, 수석 등을 감상”⁴³⁾하였던 행위들은 문인이 추구한 아취의 표상이지만, 나아가 당시의 사치 풍조를 증명하는 문화 산물의 속성도 지니기 때문이다.

이때 운현이 모든 형제가 나가고 심심해서 방 안에서 그림과 글씨를 뒤져서 보는데 벽 위에 있는 오도자(吳道子)의 그림이 정을 부추기는 것 같았다. 이로 인해 갑자기 서흥(書興)이 일어나 절구(絶句) 한 수를 짓고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가 숙모의 그림 그리는 방법이 신기한 것을 생각하고 운취각으로 갔다. 소부인이 바야흐로 왕우군(王右君)의 <난정(蘭亭)>을 놓고 쓰고 있어 생이 웃으며 말하였다.

“숙모께서 쇠약하신 연세가 되도록 화공에 전력하여 한 때도 손에서 붓을

41) 조선 후기에도 여전히 입포의 고사에서 유래한 ‘방학도’가 제작되었고, 학을 통해 은자의 탈속적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로 가면서 학이 탈속적 이미지뿐 아니라 사육의 대상, 취미의 대상, 사치의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42) 김은정, 『동양위 신익성의 부마로서의 삶과 문화활동』, 『열상고전연구』 26, 열상고전연구회, 2007, 238~242쪽.

43) 송희경, 『사랑체가 있는 풍경 - 조선 후기 서재문화와 서재의 시각화-』, 『동양고전연구』 38, 동양고전학회, 2010, 296쪽.

놓으신 적이 없으니 도학선생(道學先生)이 되시겠습니다.”

부인이 가만히 웃을 뿐 답이 없자 생이 풀어 앉아 아뢰었다.

“숙모의 그림 한 장을 얻어 배우고 싶습니다.”

부인이 말하였다.

“글과 그림은 작은 방에 있으니 아무것이나 가져가라.”

그리고는 시녀를 시켜 열쇠를 주어 선적루의 방을 열어 주니 생이 들어가 보았다. 수십 간 마루 가운데 산호(珊瑚)와 유리(琉璃)와 옥으로 된 책상과 문방구를 놓고 각종 서책을 차례로 쌓아 놓았는데, 이름 모를 것이 수없이 많았다. 정묘하고 특별한 수만 권의 서책이 있는데, 다 찍어낸 것이 아니고 소부인이 친히 써서 꾸며 만든 것이었다. 정성과 노력이 매우 크고 기이하니 특별함이 승상의 장서각보다 더 하였다. 그러므로 가히 여자 중의 학사라는 생의 칭찬이 그치지 않았다. 북쪽에 거북으로 만든 상자 수십 개가 놓여 있는데 열어보니 온갖 옛날 명화가 수없이 들어 있고 위에 있는 하나의 궤에는 무수한 그림이 들어 있었다. 부인이 만물을 그려 넣은 것이었다. <소현성록> 12권 100~101쪽.

인용문은 <소현성록>에 등장하는 취미에 관한 서술 중 가장 구체적인 것이다. 수만 권의 책과 온갖 명화들을 수집하는 취미, 고급스러운 소품들로 서재를 꾸미는 취향, 그리고 친히 책을 옮겨 쓰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소현성의 누이 소 부인의 재주와 경제적 여유가 하나의 장면에 담겨있다. 중국에서 이름난 당 대의 화가 오도자의 그림과 송 대의 서예가 왕희지의 작품을 언급한 부분 역시 소씨 가문의 경제력과 문화적 취향, 취미를 보여주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중국의 그림이나 서예 등을 직접 구해 보거나 소장할 수 있으려면 중국 왕래를 자유로이 할 수 있거나 중국 측 인물을 자주 접할 기회가 많아야 하며 막대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어야만 가능했던⁴⁴⁾ 조선시대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소설 속에 이런 취미를 즐기는 인

물을 등장시켰다는 것은 <소현성록> 향유층이 추구하는 취미가 매우 사치스러운 것임을 보여준다.

시간이 흘러 여름 6월 보름이 되자, 연못에 오색(五色) 부용(芙蓉)이 활짝 피어 향기를 다투어 내뿜었다. 화씨가 시녀와 함께 부용정에 가 두 부인을 나오라고 청하였다. (중략) 화씨가 낭랑하게 웃고 석씨와 함께 붉은 구슬 달린 신발을 끌고 연못가에 가 연꽃을 꺾어 물결을 희롱하더니, 화씨가 말하였다.

“이 연꽃은 기이하게도 진홍, 분홍, 백색, 황색, 청색이 있네. 예부터 연꽃은 홍, 백 두 가지뿐인데 어찌 다섯 가지 색이 있을까?”

석파가 탄식하고 말하였다.

“이는 우리 돌아가신 처사께서 배를 타고 유람하다 남해(南海)에 갔는데 바다 가운데에 섬이 있고 섬 가에 오색 연꽃이 피어 있어 기특하게 여기시어 연밭을 꺾어 돌아오셨습니다. 그리하여 못을 파고 연밭을 심으시니 다섯 해 만에 가지 하나가 나더니 해마다 번성하였습니다. 처사가 매우 아끼시어, 관리에게 못 가를 파고 완룡담 물을 이리로 당게 하여 물길을 깊게 하시고 정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일을 남에게 말하지 않으시고 종일토록 이곳에 와 지내셨습니다. 이런 까닭에 양부인과 상서가 차마 이 당(堂)을 보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잠가놓았으므로 부인네들도 이제야 보시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듣고 나서 기특하고 귀하게 여기며 머리를 들어 당(堂)의 제액(題額)을 보았더니, 푸른 옥으로 된 판에 붉은 글자로 메워 ‘금연오채화화정(金蓮五彩荷花亭)’이라 쓰여 있었다. 필법과 먹의 광채가 나는 듯하여 용이 움직이는 것 같이 놀라웠다. <소현성록> 2권 91~94쪽.

<소현성록>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취미는 “월예”이다. 조선 전기까지

44) 김은정(2007), 앞의 논문, 232~238쪽.

는 화훼 취미를 꺼려야 할 일로 인식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군주가 화초를 애호하면 자칫 완물상지에 빠질 수 있다는 점,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는 점, 꽃을 빨리 피게 하는 것은 천지의 운행과 조화를 거스른다는 점”⁴⁵⁾ 등을 문제로 여겼다. 그런데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화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여 인공적으로 꽃을 피우는 일을 진기한 볼거리로 여기거나, 꽃의 색을 바꾸는 일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기도 한다.⁴⁶⁾ 위 인용문에도 황색과 청색을 포함한 오색으로 된 연꽃이 등장한다. 소 부에 있는 특이한 빛깔의 연꽃은 소현성의 아버지 소경이 남해 유람 길에 가져온 것이다. 그는 특별한 색을 내는 연꽃을 구한 후, 그것을 가꾸고 감상하는 취미를 즐기기 위해 못을 파고 물길을 바꾸며 정자를 짓는 수고와 비용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그 꽃은 소경 사후에도 소부에서 소중하게 재배된다. 연꽃 본래의 색이 아닌 특이한 빛깔의 꽃을 수집하고 그것을 키우기 위해 인공적으로 정원을 조성하는 일을 군자의 도에 어긋난다거나 호사스러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고 기특하고 귀한, 고상한 취미로 여기는 것이다.

45) 조창록, 『문헌 자료를 통해 본 조선의 원예 문화』, 『동방한문학』 56, 동방한문학회, 2013, 79쪽.

46) 꽃의 색을 바꾸는 것에 관해 이옥은 그의 문집 『백운필(白雲筆)』, <담화(談花)>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꽃의 색은 원래 그 정색이 있는데, 또한 간혹 그 정색 이외의 색도 있다. (중략) 국화 같은 것은 본래 검은색이 없지만 굵벵이 가루를 밤에 백국에 뿌려두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칠흑같이 된다. 연꽃은 본래 푸른색이 없지만 연밥을 쪽 염료 향아리에 담가두었다가 그것을 심으면 꽃이 담청색으로 된다. 이는 또한 인공이 천질을 변환시킨 것이다.(후략)”(이옥, 『벌레들의 괴롭힘에 대하여』,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김, 휴머니스트, 2009, 215쪽.)

3. <소현성록> 속 놀이 문화의 의미

1) 이념에 의해 가려진 세속적 욕망과 취향 노출

<소현성록>은 작품을 읽는 관점에 따라 홀어머니 양태부인과 유복자 소현성이 가문 창달을 위해 유교적 이념을 철저히 수호하는 작품으로 읽을 수도 있고, 가부장제로 인해 억압을 당하는 남녀인물들의 고난에 관심을 기울이는 작품으로 읽을 수도 있다. 이념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개성 있는 인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소현성록> 서사의 이러한 다중적 면모를 “표면적으로는 엄정한 유가 이념을 지향하면서도 그것이 홀어머니 양씨의 사적 욕망과 결합됨으로써 주된 갈등의 축과 서술시각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간극이 섬세한 모습으로 표현”⁴⁷⁾된 것이라고 보았다.

주제를 전달하는 핵심 서사는 아니지만, 핵심 서사를 보조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주변적인 이야기를 통해서도 작품이 표방하는 삶의 자세와 은근하게 드러나는 취향 사이의 간극을 읽을 수 있는데, 앞서 살펴본 놀이와 취미에 관한 서술도 그 중 하나이다.⁴⁸⁾ <소현성록> 서사의 중심 가문인 소부, 그리고 소부의 구성원들은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공식적으로 청렴하고 검소한 삶을 지향한다.

47) 박일용, 『소현성록의 서술시각과 작품에 투영된 이념적 편견』, 『한국고전연구』 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9쪽.

48) <소현성록>의 놀이문화를 본격적으로 고찰한 것은 아니지만, <소현성록>의 보여주기 서술에 주목하여 이 작품이 “유교 이념에 토대를 둔 상층 사회의 교양미를 추구”한 것이라고 본 선행 연구도 있다.(조혜란, 『<소현성록>의 보여주기 서술과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260쪽.)

후대 사람들이 시를 지어 찬양하며 말하였다.

“평생토록 덕을 베풀고 순박하고 검소하며, 공손히 예의를 지켰네. 선(善)을 쌓아 놓은 것이 자손에게까지 흘러 자손들이 가문을 드높였네. 7대에 정승이 난 것은 효행과 정직함을 푸른 하늘이 도우시고神明(神明)이 감동하신 것이라네.” <소현성록> 4권 126쪽.

소부 구성원들의 효행과 정직, 그리고 순박함과 검소함은 후대 사람들의 찬양과 기림을 받을 만큼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소부가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그들이 예와 효를 알고 선을 쌓으며 검소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실상 소부가 중시하는 검소함이라는 덕목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편의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운성이 문득 정색하고 말하였다.

“내가 그대와 함께 해로한 지 6,7년에 이렇게 사치하는 뜻을 두었는지 알지 못하였구려. 우리 소씨 집안이 교목세가(喬木世家)로 800년을 내려왔는데 사치하는 일이 없이 대대로 학문을 닦아 우리 조상의 덕을 엄숙하게 여겼네. 이제 우리 형제가 비록 재상이 자제로 나이가 어리고 경박하여 공손하고 조심하는 일이 없지만 또한 선비의 덕을 마음에 새겨 조복(朝服) 이외에는 비단을 입지 않고 사치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네. 부인이 이미 어린아이가 아니며 남의 이목이 있는데 무슨 까닭으로 이상하고 요괴로운 것을 모아 엮어서 치장하여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빛나는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가? 이러는 것이 부인의 덕이 아니며 우리 집의 검소한 덕을 무너뜨리는 것일세. 그대가 다시 저런 이상한 것을 경대 속에 두고자 하거든 우리 집에 있지 말게.”

(중략) “제가 불민하여 거룩한 가문의 예의를 상하게 하니 부끄러운 것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칠보를 매만지는 것은 낭군께서 5년 동

안 부마로 있으면서 사치한 형상에 비하면 우습기가 어떻습니까?” <소현성록> 9권 42~44쪽.

소운성은 아내 형 씨가 지인이 주최하는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일곱 가지 보석으로 된 장신구를 다듬는 것을 보고 사치한다며 나무란다. 그러자 형 씨가 자신의 사치를 지적하는 소운성에게 그가 부마로 있으면서 사치한 것에 비하면 자신의 사치는 우스울 뿐이라고 맞선다. 소운성이 명현 공주 사후 형 씨와 다시 만나 부부 간의 기 싸움을 벌이는 장면에서 오고 간 ‘사치’에 대한 위와 같은 말들은, <소현성록>이 노출하고 있는 삶에 대한 가치관의 모순된 태도들을 잘 보여준다. 마치 18세기의 경화세족 관료인 남공철이나 서명선 등이 스스로를 처사(處士) 혹은 초야의 은둔자와 같은 인물로 묘사하면서 실상은 고동서화를 수집·감상하는 취미를 지녔던 것⁴⁹⁾과 같은 양상인 것이다.

18세기 화가 김홍도는 당비과를 들고 있는 선비와 서책, 산호, 지필묵, 두루마리 서화권, 푸른 빛의 쌍이병 등의 서화고동을 그린 후 소박하고 검소한 집에 살지만 평생 벼슬 욕심 없이 노래나 읊조리며 살겠다는 화제를 곁들인 <포의풍류도>라는 그림을 그렸다. 그림 속에 묘사된 부귀를 과시하는 진귀한 기물들과 어울리지 않는 화제를 곁들인 것⁵⁰⁾이다. 이는 <소현성록> 속 소부 구성원들이 주장하는 검소함이 실상 수양이라는 애초의 목표와는 거리가 멀어진 잡기인 투호 놀이를 넓은 방 안에서 즐기는 것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만여 명의 손님이 문을 가득 메우는 양로연을 3일 동안 열며, 많은 비용이 드는 뱃놀이나 관광도 부담 없이 즐기거나,

49) 장진성, 「조선 후기 고동서와 수집열기의 성격:김홍도의 <포의풍류도>와 <사인초상>에 대한 검토」, 『미술사와 시각문화』 3,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04, 166쪽.

50) 송희경(2010), 앞의 논문, 316쪽.

각종 고동서화와 화조를 수집하고 기르는 취미와 부조화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소현성록>과 같은 유형인 국문장편소설 <임씨삼대록>이 “검소함에 대한 강조나 사치에 대한 경계 없이 임부나 설부의 인물들이 누리고 있는 재화들을 틈틈이 서술”⁵¹⁾하며 노골적으로 부를 과시한다면, <소현성록>은 검소함을 강조하고 사치를 경계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은근히 부를 노출하고 추구한다. 검소와 청렴, 사치와 향락이라는 상반된 성향의 것들을 나름의 방식⁵²⁾으로 합리화 하고 균형을 맞추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소현성록>이 적어도 놀이와 취미에 있어서는 검소함보다 화려함과 사치를 추구하는 쪽으로 기울었음은 작품 속 연회 장면에서 등장하는 춤과 음악 취향을 통해서도 짐작해볼 수 있다.

양부인 생일이 다다라 세 부인이 하루씩 돌아가며 잔치를 베풀고 오래 사시기를 비는 술잔을 올렸다. (중략) 장차 세 며느리와 두 딸, 유학사, 한어사 등이 상서와 더불어 예(禮)에 참여하고, 양부인의 친조카인 양생 등 예닐곱 명도 왔다. 풍류하는 시녀에게는 중계(中階)에서 거문고 한 곡조와 예상무(霓裳舞) 한 곡을 하게 하였다. <소현성록> 3권 6~7쪽.

양부인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공연한 ‘예상무’는 당 현종이 만든 ‘예상우의곡’에 맞춰 추는 춤이다. <사씨남정기>에서 사씨는 거문고로 ‘예상우의곡’을 연주한 교씨에게 부귀와 향락을 누리다가 끝내는 죽음을 맞이하고 나라를 망하게 한 당 현종과 양귀비가 즐긴 망국의 음악을 즐긴

51) 조혜란, 『취향의 부상-〈임씨삼대록〉의 반복 서술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7, 한국고전문학회, 2010, 151쪽.

52) <소현성록>은 각종 놀이와 취미를 대부분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처사적 면모를 드러내기 위해 즐기는 것처럼 서술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며 나무란다.⁵³⁾ <구운몽>에서 양소유는 부귀와 향락을 누리던 천고 영웅의 삶도 부질없음을 말하며 당 현종과 양귀비를 언급한다.⁵⁴⁾ 그런데 <소현성록>에서는 양 태부인의 장수를 비는 생일잔치 자리에서 ‘예상우의곡’과 ‘예상우의무’를 연주하고 즐긴다. <사씨남정기>와 <구운몽>이 부귀와 향락을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의 부질없음을 말하기 위해 예상곡을 언급했다면, <소현성록>에서는 <사씨남정기> 속 사씨가 말한 것처럼 부귀와 영화에 초점을 두면서 ‘요즘 사람들이 숭상하는’ 유행곡을 따른 것이다.

2) ‘소비’와 ‘취향’의 긍정으로 나아가는 상층 문화의 과도기적 일면 묘사

‘투호’는 절차와 예절을 중시하는 놀이로서, 14~17세기 까지는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바르게 하는 놀이로 인식되면서 왕실이나 종친, 남성 사대 부들에 의해 행해졌다. 그러다가 18세기 이후 시회(詩會)나 아회(雅會)에서 술을 마시는 흥취를 돋우거나 풍류를 즐기는 놀이로서의 성격이 강해졌고 부인과 남편, 여인들 등 여러 계층의 인물들이 함께 즐기는 오락으

53) 낭자가 연주한 거문고 곡은 바로 <예상우의곡>이네. 이 곡을 요즘 사람들이 숭상하는 하지만 그 시대를 의논하자면 당 현종은 화려하고 부귀스러운 향락을 지나치게 누리다가 끝내 안녹산의 난을 만나 만 리 밖으로 피신했고, 양귀비는 안녹산의 생일에 그를 비단 포대기로 싸고 놀아 비난을 받다가 끝내 마외의 언덕에서 죽임을 당해 세상 사람들이 비천하게 여겼지. 따라서 이 곡은 망국의 음악으로, 숭상하기에는 부족하다네. <사씨남정기>, 37~38쪽.(김만중, 『사씨남정기』, 류준경 옮김, 문학동네, 2014.)

54) 동쪽을 바라보니 분칠한 성이 청산을 둘러고 붉고 옅은 안개가 공중에 숨었고 명월이 오락가락하는데 난간을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 이는 현종 황제께서 태진비와 같이 노시던 화청궁이다. 이 세 임금은 천고의 영웅이라. 사해를 집으로 삼고 억조창생을 신하로 삼아 호화부귀가 백 년을 짧게 여기더니 이제 다 어디 있나뇨. <구운몽>, 227쪽.(김만중, 『구운몽』, 송성욱 옮김, 민음사, 2008.)

로 변모했다⁵⁵⁾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17세기 후반 소설 <소현성록>이 묘사하는 투호는 이미 마음을 다스리는 놀이에서 벗어나 흥취를 돋우는 ‘잡기’이자 사치스러운 놀이로 묘사된다.

미술사 연구에 따르면 고사(高士)가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대하거나 휴식을 즐기는 사랑채 문화, 혹은 서헌문화를 묘사한 그림은 18세기 이후 등장하였고 그림에 등장하는 서재에 문인의 취미를 암시하는 서책, 두루마리, 고동 등이 등장한 것 역시 18세기 이후의 일이라고 한다.⁵⁶⁾ 그리고 <독서여가도>(정선)가 그려진 18세기 중반만 해도 18세기 후반과 같은 광적인 고동서화 및 분재, 화훼 애호 풍조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한다.⁵⁷⁾ 그러니 아직 전형을 획득하지 못한 18세기 중반 사인들의 서재 문화를 사인풍속화가 담고 있다면, <소현성록>은 이런 풍속화 보다 조금 더 앞서, 당대 사람들의 서재 문화나 수집에 대한 취향을 보여준다.

18세기 중엽 김희성이 그린 <석천한유도>(1748)는 무관 전일상이 누각 위에서 기생들과 오후를 보내고 있는 그림으로, 양반계층의 유흥적 행락이 본격적인 회화 주제로 등장했음을 보여주는 초기작이다. 또 신윤복이 그린 <선유도>(18세기 후반~19세기 초)는 양반이 기녀와 대금을 부는 시종 등과 함께 배를 타고 유람하는 장면을 담은 것으로, 18세기 후반에 전개된 도시적 유흥문화의 향락성과 사치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⁵⁸⁾ 그런데 <소현성록>에는 이미 이들 풍속화보다 앞서 문인재사의 뱃놀이뿐 아니라 풍류학사(風流學士)의 뱃놀이도 묘사하며⁵⁹⁾ 창

55) 김광섭, 『이만수의 <투호집도>를 통해 본 조선 후기 투호유희 양상』, 『민족문화연구』 5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0, 517~545쪽.

56) 송희경(2010), 앞의 논문, 313~316쪽.

57) 장진성(2007), 앞의 논문, 267쪽.

58) <석천한유도>와 <선유도>에 관한 내용은 장진성(2007), 앞의 논문, 273~275쪽.

59) 소현성은 형 한림 등이 주최한 변화 뱃놀이 장소에 예고도 없이 나타나 “문인재사의

기들의 미색을 겨두는 대규모의 향락적인 연회(잔치)를 언급한다.

이때 예부상서 조명이 문장과 학문과 덕행이 빼어나고 풍채와 기상이 거침없으니 승상이 제자로 두었다. 조명은 유복자이지만 그 모친 정씨가 어질고 사리에 밝아 자녀 훈계하는 것을 어질게 하였기 때문에 승상이 제자로 삼았다. 소공이 또한 그의 학식과 재주를 어여뻐 여겨 문하생으로 받았는데 그가 입신한 후 방탕해져서 창첩(娼妾)을 모았다. 그 어머니 정부인도 비록 어질긴 하지만 화려하고 번잡한 풍모가 있어서 아들의 뜻에 따라 여러 창녀로 집안을 메웠다. 또한 많은 대신을 청하고는 자신의 첩을 내어 미모를 겨루게 하였고, 잔치할 때 그 어미와 처자에게 구경하라고 하며 대신들에게 기별하여 미첩(美妾)을 데려와 누가 더 나은지 정하자고 하니 승상 이하의 관료들이 모두 미첩을 단장시켜 데려갔다. 조명의 아내 되는 사람의 아버지인 상소연이 또한 사위의 청으로 잔치에 가고 우승상 공희 또한 미녀를 거느리고 갔으며 그 외에 조정에 가득한 대신들이 수 없이 참여하였고 조명도 궁중의 시녀와 창기첩을 다 단장시켜 미색을 겨루었다. 그러나 존경하는 스승의 사람됨을 알기 때문에 감히 표를 내지는 못하고 다만 운성 등을 살짝 칭하여 미첩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 <소현성록> 12권 84~86쪽.

조명이 벌이는 이 잔치의 서사적 기능은 방탕한 생활을 하던 조명을 가르쳐 바른길로 인도하는 스승 소현성의 엄하고도 어진 모습을 부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놀이 문화에 주목해서 보면 이 사건은 사치스럽고 향락적인 유흥문화 부상의 징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완물상지(玩物喪志) 담론을 의식하여 고동서화 취미를 아취(雅趣)로

뱃놀이에는 술과 안주가 옳고 풍류학사의 뱃놀이에는 창기”(〈소현성록〉 9권, 71쪽.)를 모아야 하는데, 말석에 성인(聖人)인 동서 손기가 앉아있으니 술과 안주와 풍악을 대동할 수 없었다는 농담을 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뱃놀이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미 형 한림 등은 창기와 풍악이 있는 뱃놀이를 벌이고 있다.

미화하며 즐겼던 경화세족들은 18세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화려한 취향과 문화를 글로 남겼다. 그 글을 보면 경화세족은 대 저택을 짓고, 그 속에서 향을 피우고, 차를 마시며, 서화를 품평하고 감상하는 그들만의 문화를 즐겼다.⁶⁰⁾ 그런데 <소현성록>은 유희적 문화로 경사되어가는 이러한 상층의 놀이와 취미의 양태를 18세기 산문보다 앞선 시기에 소설 양식을 빌어 그려내고 있다.

한편 <소현성록>은 놀이와 취미의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보다는 놀이와 취미가 만들어내는 분위기를 집중적으로 전달하는 서술 방식을 취한다. 작중 서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은 서술을 대폭 확대하면서 그 속에 다양한 지식을 담아내는 박학 취향을 지향⁶¹⁾한 19세기 소설과 대조해보면, 17세기 소설 <소현성록>이 놀이나 취미를 그리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유양은 본래 천하의 명승이오 동남의 도회이다. 바다를 베개로 삼고 회문을 옷깃으로 삼았으며 산은 감천산, 행산, 나부산 같은 기이함이 있고 물은 해문도, 양자강, 백마호의 맑음이 있으니 이십사 교와 굴원의 묘와 광릉경과 미루와 평산당과 죽서정과 경화관의 허다 아름다운 고적이 있는지라. 양주의 학과 나부의 매화는 천하에 유명하고 사약은 본대 토산이다. 서른 두 종류 가운데 금대우는 세상의 절품이니 장군이 이 무리를 모아 나부의 매화와 선품의 백학을 한 곳에 두어 맹호연과 허자의 그윽한 흥을 표하고…… <명행정의록>⁶²⁾

60) 강명관(1998), 앞의 논문, 6~14쪽.

61) 서정민, 「<삼강명행록>의 창작 방식과 그 의미」, 『국제어문』 35, 국제어문학회, 2005 ; 장예준, 「19세기 소설의 ‘지식’ 구성의 한 양상과 ‘지식’의 성격」, 『한국어문학연구』 55,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0 ; 김경미, 「지식 형성과 사유의 장으로서의 소설의 가능성 - <삼한습유>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6,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등.

62) 서정민, 「명행정의록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6, 112쪽에서 재인용하였으며,

고택의 정경을 서술한 <명행정의록>의 인용 부분을 보면, 꽃을 심고 학을 키우는 탈속적 정취를 지향하는 것은 <소현성록>과 유사하지만, 그러한 정취를 그려내기 위해 덧붙인 수식들이 훨씬 다양하고 구체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현성록>에도 빛깔이 독특한 연꽃을 구하고, 그것을 감상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정원을 가꾸는 등 화훼와 조경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는 서술이 있다. 화훼와 조경에 대한 관심이 18, 19세기 상층에서 유행한 문화 풍조라고 보는 시각⁶³⁾을 17세기 중 후반까지로 소급할 수 있는 단서이다. 그러나 <명행정의록>의 서술과 비교해보면 <소현성록>은 취향과 관련한 지식의 과시나 정보전달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⁴⁾

그렇다면, <소현성록>이 자본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소비적인 놀이와 취미를 지향하는 취향을 작품에 드러내면서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해볼 수 있다. 19세기에 소설을 창작, 향유한 층에 비해 17세기 후반의 소설 향유층이 소비적 놀이와 취미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묘사를

고어 중 일부는 현대식 표기로 변환하였다.

63) 서정민(2006), 앞의 논문, 113쪽.

64) 놀이와 취미, 즉 문화적 취향을 드러내는 서술 태도상의 특징은 19세기 것만이 아니라 18세기 이후 향유되었던 국문장편소설의 서술 방식과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18세기 이후 향유된 국문장편소설의 놀이나 취미, 취향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현재 다수의 작품을 검토하지 못했으므로 선행 연구의 결과를 대신 활용해본다. 한길연은 <유씨삼대록>의 놀이를 검토한 논문에서, 해당 작품은 집안에서 벌이는 잔치 장면을 서술할 때 연회를 여는 방식, 예의법절, 주요한 음식물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친잠의와 같은 국가 연회를 묘사할 때는 행사의 분위기뿐 아니라 대략적인 절차도 함께 서술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한길연(2012), 앞의 논문, 276~290쪽.) 놀이에 관한 <유씨삼대록>의 서술이 박학을 추구하는 19세기 소설보다 정밀하지는 않지만, <소현성록>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면모가 있다고는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해내지 못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옥소 권섭의 가문처럼 노론 경화사족에 속하는 집단이 <소현성록>과 같은 국문장편소설의 주된 향유층이었다는 점,⁶⁵⁾ 그리고 17세기의 경화사족은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토대로도 충분히 사치스러운 문화를 즐길 수 있었고, 또 왕가 구성원들과 혼맥으로든 인맥으로든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큰 설득력이 없다. 예를 들어 17세기 초 조선의 문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고 평가되는 동양위(東陽尉) 신익성은 부마가 누릴 수 있는 물질 풍요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사치를 하였는데, 외국 서적 수입에도 관심이 있어서 명(明)에서 간행된 책을 불과 5~6년 후면 구입해서 볼 여건이 되었다.⁶⁶⁾ 그리고 그는 경화사족들과 당연히 정치적, 문화적 교류를 하였다.⁶⁷⁾ 이런 여건들은 왕족을 비롯한 경화사족들이 중국으로부터 문화적 영향을 받기 쉬운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16~17세기 중국은 한아(閒雅) 풍조와 숭치(崇奢) 풍조로 대변되는 문인문화와 소비문화가 공존했던 시기로, 유람, 정원 조성, 고서화, 골동품, 서재, 장서 등에 투자하는 과시형 소비와 의복, 음식, 식기, 주택 장식, 교통수단 등에 신경을 쓰는 사치문화가 만연했다.⁶⁸⁾ 그러나 17세기 조선의 경화사족들이 숭사풍조의 구체적인 면면들을 전혀 알지 못했을 리는 없다.

65) 권섭의 경화사족으로서의 문화적 경험과 취향을 살펴본 연구로는 남정희, 「18세기 경화사족의 시조 향유와 창작 양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02; 신경숙, 「옥소 권섭의 음악경험과 18세기 음악환경」, 『국제어문』 36, 국제어문학회, 2006 등을 참고할 수 있다.

66) 김은정(2007), 앞의 논문, 238~242쪽.

67) 이근호, 「17세기 전반 경화사족의 인적관계망 - <세구록>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38, 서울시립대 부설 서울학연구소, 2010, 151~194쪽.

68) 윤정분, 「명말(16~17세기) 문인문화와 소비문화의 형성」, 『명청사연구』 23, 명청사학회, 2005, 255~283쪽.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현성록>의 놀이나 취미에 관한 서술이 소재 면에서는 충분히 유흥성과 사치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술 방식 면에 있어 구체적이지 않은 이유를, 전란 후 조선 경화사족의 경제와 문화에 관한 인식이 승검(崇儉)에서 사치나 취향을 인정하고 즐기는 방향으로 변화해가는 ‘과도기적’ 성격을 지녔다는 점에서 찾는다. 그리고 이것을 ‘놀이 문화’를 통해 소설 <소현성록>이 보여주는 17세기 후반기적 문화에 관한 인식의 특징으로 보는 것이다. 사실 어느 시기나 최상층 구성원들은 다방면에서 사치할 수 있는 물질 기반을 보유하고 있었다.⁶⁹⁾ 그런데 17세기 중반까지는 심신 수양이나 예, 덕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유흥적이고 과시적인 놀이나 취미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주저했다면, 18세기 이후로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수차례 언급했던 바, 상업자본의 발전과 상품화폐경제의 확대로 인해 여기문화의 상업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면서 취미나 유흥을 즐기는 것에 대한 억압에서 벗어나 오히려 취미를 열정적으로 즐기는 것을 긍정하는 시각들이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⁷⁰⁾ 그리고 17세기 후반의 소설 <소현성록>이 그 사이에 위치한 것이다.⁷¹⁾

<소현성록> 향유층이 검소와 사치리는 상반된 가치 사이에서 의식적으로나마 ‘갈등’하고 있는 과도기적 작품이라는 점은, <임씨삼대록>과 같

69) 이는 앞서 살펴본 부마 신익성과 그가 교류했던 집단의 문화생활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70) 안대회(2012), 앞의 논문, 69~70쪽.

71) 17세기 실기류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놀이 문화에 대한 묘사들이 <소현성록>과 같은 17세기 소설에서 발견되는 것과 관련하여 소설의 장르적 속성을 고려하여 부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심사위원의 지적이 있었다. 소설의 경우 문화의 반영물임과 동시에 욕망을 투사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다양한 놀이나 취미에 대한 묘사가 좀 더 자유로웠을 것이라는 추측은 충분히 가능하다. 좀 더 많은 자료들을 검토하여 이러한 추측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작업을 추후 계속하도록 하겠다.

은 18세기 이후의 국문장편소설과 비교를 해보아도 알 수 있다. “공간이 장대하고 건물들이 화려한 것은 <소현성록>의 소부도 마찬가지였지만 <소현성록>의 서술자는 끊임없이 소부의 검소함을 강조하고 그 집안에서 사치를 경계하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서술한다. 그러나 <임씨삼대록>에는 그런 강조나 경계를 찾아보기 어렵다.”⁷²⁾는 분석은 <소현성록>과 <임씨삼대록>이 각기 지닌 ‘부’와 ‘사치’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단, 어느 시대나 ‘사치’에 대한 경계가 존재하는 만큼,⁷³⁾ <소현성록>에서 <임씨삼대록>의 시대로 오면서 모든 ‘사치’가 허용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사치로 인식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겼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임씨삼대록>은 궁실의 규모나 의상의 화려함 등을 통해 그들의 세와 부를 과시하고 취향을 드러내는 성향이 강하다면, <유씨삼대록>은 화려하고 규모 있는 놀이를 즐기는 것 자체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지만, 놀이에서도 예를 갖추려 하고 놀이의 절차⁷⁴⁾ 등에 관심을 보인다. 그리고 <소현성록>은 문인취향의 아취(雅趣)를 드러내는 취미와 놀이, 효와 결부된 놀이나 사치⁷⁵⁾는 문제 삼지 않지

72) 조혜란(2010), 앞의 논문, 150~151쪽.

73)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사치’에 대한 경계는 어느 시대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단, 무엇을 사치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인식 상의 변화가 있고, 전란과 같은 재해 상황에서는 사치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기도 하는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74) 한길연(2012), 앞의 논문, 276~290쪽.

75) “우리를 삼형제가 조정의 대신이 되고 천자의 총애를 입었으나 일찍이 어머니의 영화를 빛내지는 못했으니, 입신양명(立身揚名)해서 부모를 세상에 높이 드러낸다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어머니가 평생 검소하고 소박하셨고 그 뜻을 닦았으나 우리의 형편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드디어 세 사람이 함께 상소하여 잔치 베풀어주시기를 청하니 천자가 효성을 아름답다고 여기셨다. 또 황후가 석부인의 꽃다운 명망을 들으셨으므로 즉시 조서를 내리시어 석부인을 정숙현덕부인(靜淑賢德夫人)으로 봉하시고 사관을 보내 술잔을 올렸다. 그리고 노비 수백 명을 주시며 칠보쌍봉관(七寶雙鳳冠)과 홍금적의(紅錦翟衣)와 무우리(無憂履)와 옥대(玉帶)를 주시는 등 각별히 천자의 은혜를 내리시며 작위

만, 외모를 꾸미는 등의 사치에 대해서는 강하게 경계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17세기 후반 소설 <소현성록>은 청렴하고 검소한 삶에 대한 지향과 유희적, 소비적 놀이와 취미에 대한 취향이라는 상반되는 것들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소부 구성원들의 탈속적 취향을 드러내기 위해 개입되는 배경으로서의 놀이나 취미, 부모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즐기는 놀이, 문인적인 풍모를 드러내는 취미 등이 사치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관대한 견해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소현성록>이 작품에 담은 이러한 놀이나 취미에 대한 태도는 18세기 경화사족들의 문화적 취향과 유사한 면이 많다. 그러니 18세기 경화사족이 경제적 기반과 문화적 사치를 즐길 여가를 확보하고 전대의 문화적 성취를 계승하여 조선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예술 영역을 확충해 나갔다고 한다면,⁷⁶⁾ <소현성록>의 놀이와 취미에 관한 서술, 그리고 사치에 관한 인식 등은 바로 그들이 계승하고 활용하였던 전대의 문화적 성취의 후기적 면모와 18세기로 향해가는 새로운 변모의 초기상을 동시에 보여주는 문학

를 높여 화부인과 같게 하시니 영광이 밝게 빛났다. 운성이 바야흐로 잔치를 베풀고 천자의 사신을 후하게 대접하고 천자의 조서를 꺼내 모든 대신에게 보인 후 어머니께 잔을 올려 축하를 드렸다. 부인이 계시는 벽운루가 협소하다고 말하며 높은 루에 아름답게 단청한 누각을 100간(間) 되는 크기로 세우고 붉은 옥으로 난간을 꾸몄다. 그리고 가운데에 50간 되는 누각을 세워 남북으로 두 방을 나누고 북루(北樓)는 더위를 피하게 하고 남루(南樓)는 추위를 피하게 하였다. 넓게 두 곳을 나눠 시녀를 50인 씩 두고 모친을 모시니 석부인이 비록 자녀의 효도하고자 하는 뜻을 알지만 모든 면에 있어 취성전과 같은 것을 편하지 않게 여기고는 시녀의 수를 줄이고 의복을 검소하게 하였다. 승상이 셋째 아들의 부모 공경하는 뜻을 보고 주의를 주어 다만 사치스럽거나 과도하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소현성록> 12권, 38~40쪽.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소현성록>에서는 양 태부인의 양로연을 성대하게 치른다. 또 인용문에서처럼 소운성 등이 조정의 대신이 되고 천자의 총애를 입은 후 스스로 황제에게 어머니 석 부인을 위한 잔치를 베풀어주기를 청하기도 하고, 어머니를 위해 100간 처소를 새로 짓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 자체를 사치로 여기지는 않는다.

76) 김은정(2007), 앞의 논문, 251~252쪽.

자료이기 때문에 문화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4. 결론

사람들의 인식이나 문화의 변동이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단계를 밟아가다가 일정한 때가되어 대세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라면, 18세기 이후의 문화를 말할 때 자연스럽게 결부되는 유흥이나 취미, 취향, 놀이 등을 대하는 이전 시기의 인식은 어떠하였는가에 대한 궁금증에서부터 본 연구는 출발하였다. 17세기 중후반의 소설 <소현성록>에 나타난 상층의 놀이 문화를 대상으로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초반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양상을 살펴본 결과, 최상층의 경우 놀이 문화를 즐길 만한 경제적, 시간적, 경험적 토대는 이른 시기부터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념과 조화롭게 연결시키고, 좀 더 세련되게 표출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작품을 중심 서사와 주변서사로 나누어볼 때, <소현성록>은 주제를 전달하는 중심 서사는 강한 어조로 이념을 강조하지만,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주변 서사는 사치스럽고 화려하며 향락적이고 유흥적인 분위기를 조심스럽게 그려내고 있는데, 본 연구는 그러한 주변 서사 중에서도 놀이 문화에 초점을 맞춰 작품을 읽어본 것이다. 작품 내적으로 볼 때, <소현성록>의 놀이 문화는 효나 우애, 선비정신과 같은 덕목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선에서 작품이 지향하는 세속적 욕망이나 취향을 은근히 드러내는 묘미를 발휘하였다. 그리고 문화사적으로는 탈속적 이미지나 선비정신을 강조하던 16세기 상층의 문화가 경화사족의 사치와 향락을 전면에 드러내게 되는 18세기적 문화로 변모하는 과정의 과도기적 양상의 일면을 읽어볼 수 있

는 근거들을 제공하였다.

17세기 전반에 걸친 유흥 문화의 양상 고찰을 통해 17세기 전반과 후반의 변화, 그리고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초반의 변화 등을 좀 더 세밀하게 다루어보았으면 하는데, 자료의 부족으로 현재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또 17세기에서 18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측면에 주목했기 때문에 17세기 이전 놀이문화와의 유사성이나, 18세기 놀이문화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17세기 후반 놀이문화만의 특성 등은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17세기 놀이문화, 유흥문화의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실사 자료들을 보강하고, 17세기에 향유되었던 여타 소설들을 분석하여 양자를 비교함으로써, 17세기 소설에 나타난 놀이 문화의 전반적 양상과 의미를 균형감 있게 고찰하는 일은 후속 작업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김만중, 『구운몽』, 송성욱 옮김, 민음사, 2008, 1~254쪽.
- _____, 『사씨남정기』, 류준경 옮김, 문학동네, 2014, 1~438쪽.
- 이 옥, 『별레들의 괴롭힘에 대하여』,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김, 휴머니스트, 2009, 1~486쪽.
- 조혜란·정선희·허순우·최수현 역주, 『소현성록』 1, 소명출판사, 2010, 1~568쪽.
- _____, 『소현성록』 2, 소명출판사, 2010, 1~458쪽.
- _____, 『소현성록』 3, 소명출판사, 2010, 1~650쪽.
- _____, 『소현성록』 4, 소명출판사, 2010, 1~567쪽.
- 강명관, 『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공간』, 소명출판, 1999, 1~428쪽.
- _____, 『조선 후기 경화세족과 고동서화 취미』, 『동양한문학연구』 12, 동양한문학회, 1998, 5~38쪽.
- 김경미, 『지식 형성과 사유의 장으로서의 소설의 가능성 - <삼한습유>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6,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335~364쪽.
- 김광설, 『이만수의 <투호집도>를 통해 본 조선 후기 투호유희 양상』, 『민족문화연구』 5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0, 517~545쪽.
- 김은정, 『동양위 신익성의 부마로서의 삶과 문화활동』, 『열상고전연구』 26, 열상고전연구회, 2007, 215~254쪽.
- 남정희, 『18세기 경화사족의 시조 향유와 창작 양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02, 1~192쪽.
- _____, 『<한양가>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 탐색』, 『한어문교육』 26,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2, 239~270쪽.
- 박수경, 『선조 양로연의 사상과 공연양상 고찰』, 『한국음악사학보』 30, 한국음악사학회, 2003, 315~344쪽.
- 박영희, 『소현성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1993, 1~256쪽.
- 박일용, 『소현성록의 서술시각과 작품에 투영된 이념적 편견』, 『한국고전연구』 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5~39쪽.
- 박정애, 『조선 후기 회화에 나타난 학의 이미지와 표현 양상』, 『미술사연구』 26, 미술사연구회, 2012, 105~137쪽.
- 서정민, 『<삼강명행록>의 창작 방식과 그 의미』, 『국제어문』 35, 국제어문학회,

- 2005, 71~95쪽.
- 서정민, 『고전 대하소설 속 바둑문화의 특징과 의미』, 『국문학연구』 27, 국문학회, 2013, 35~53쪽.
- _____, 『명행정의록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6, 1~179쪽.
- 송희경, 『사랑채가 있는 풍경 - 조선 후기 서재문화와 서재의 시각화』, 『동양고전연구』 38, 동양고전학회, 2010, 295~329쪽.
- 신경숙, 『옥소 권섭의 음악경험과 18세기 음악환경』, 『국제어문』 36, 국제어문학회, 2006, 39~73쪽.
- 안대회, 『조선 후기 취미생활과 문화현상』, 『한국문화』 60,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2, 65~96쪽.
- 요한 호이징하, 『호모 루덴스』, 김윤수 옮김, 까치, 2014, 1~334쪽.
- 윤정분, 『명말(16~17세기) 문인문화와 소비문화의 형성』, 『명청사연구』 23, 명청사학회, 2005, 255~283쪽.
- 윤진영, 『옥소 권섭(1671~1759)의 그림 취미와 회화관』, 『정신문화연구』 제30권 제1호, 2007, 141~171쪽.
- 이근호, 『17세기 전반 경화사족의 인적관계망 - <세구록>의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38, 서울시립대 부설 서울학연구소, 2010, 151~194쪽.
- 이동환, 『선비 정신의 개념과 전개』, 『대동문화연구』 3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5~53쪽.
- 이민희, 『17~18세기 고소설에 나타난 화폐경제의 사회상』, 『정신문화연구』 32권 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129~154쪽.
- _____, 『고소설 삽입 '놀이'의 서사적 역할과 의미 연구』, 『고소설연구』 25, 한국고소설학회, 2008, 239~265쪽.
- _____, 『고소설에 나타난 놀이의 서사적 성격과 놀이 문화』, 『열상고전연구』 30, 열상고전연구회, 2009, 261~300쪽.
- 이종묵, 『조선 후기 놀이문화와 한시사의 한 국면』, 『애산학보』 34, 애산학회, 2008, 157~188쪽.
- 이태진, 『18~19세기 서울의 근대적 도시발달 양상』, 『서울학연구』 4,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1995, 1~35쪽.
- 장예준, 『19세기 소설의 '지식' 구성의 한 양상과 '지식'의 성격』, 『한국어문학연구』 55,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0, 99~131쪽.
- 장진성, 『조선 후기 고동서와 수집열기의 성격:김홍도의 <포의풍류도>와 <사인초

- 상>에 대한 검토, 『미술사와 시각문화』 3,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04, 154~203쪽.
- 장진성, 『조선후기 사인풍속화와 여가문화』, 『미술사논단』 24, 한국미술연구소, 2007, 261~291쪽.
- 정선희, 『장편가문소설의 놀이 문화의 양상과 기능』, 『한민족문화연구』 36, 한민족문화학회, 2011, 181~209쪽.
- 정인숙, 『조선후기 도시의 발달과 여성의 소비문화에 대한 담론의 성격』,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 221~258쪽.
- 정지영, 『조선시대 부녀의 노출과 외출 : 규제와 틈새』, 『여성과 역사』 2, 한국여성사학회, 2005, 149~181쪽.
- 조창록, 『문헌 자료를 통해 본 조선의 원예 문화』, 『동방한문학』 56, 동방한문학회, 2013, 73~96쪽.
- 조혜란, 『<옥루몽>의 서사미학과 그 소설사적 의의』, 『고전문학연구』 22, 한국고전문학회, 2002, 225~255쪽.
- _____, 『조선후기소설에 나타난 유희 서술 연구』, 『한국고전연구』 3, 한국고전연구학회, 1997, 95~122쪽.
- _____, 『<소현성록>의 보여주기 서술과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217~264쪽.
- _____, 『취향의 부상-〈임씨삼대록〉의 반복 서술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7, 한국고전문학회, 2010, 135~173쪽.
- 차충환·김진영, 『고소설에 나타난 놀이문화 연구 - <옥루몽>과 <옥선몽>을 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 24, 한국공연문화학회, 2012, 373~404쪽.
- 하을란, 『조선후기 양로연의 양상과 특징 : 영정조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22,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5, 199~235쪽.
-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여성의 놀이문화 연구』, 『여성문학연구』 28,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267~298쪽.
- 한영규, 『19세기 경화사족의 학예 취향과 만명사조』, 『인문과학』 48,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277~300쪽.
- 고연희, 『선비와 鶴... 마주한 두 시선의 맑고 깨끗한 교감이어』, <문화일보> 2013년 1월 11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11101033130025002>)

ABSTRACT

One Aspect of Late 17th Century's Entertainment Culture Seen
Through a Korean classical long Novel, Sohyeonseongrok

Hur, Soon-woo

Most of existing studies about entertainment culture — especially adult entertainment culture — which take classic literature and works of art as their subject are focusing on their appearance and significance since 18th century. However, as many of them describe the culture to have developed more 'relatively' and 'earnestly' than precedent era, the question arises that what was the development of entertainment of mid-late 17th century like. Thus, this study examined the entertainment culture perceived by people of mid-late 17th century — for it was the 'transition period' to 'late Choseon Dynasty true to the name', between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the Second Manchu war of 1636 and 18th century — and what can be understood through the culture, as Sohyeonseong-rok, a 17th century's Korean classical long Novel, its subject.

Not only aiming to confirm that the games and hobbies reproduce the entertainment culture of the time, but this study also focused on the appearance and significance of the fact that there existed cultural tendencies and preferences with which various plays and hobbies could be imagined, accepted, and described in the same forms as in the novel. In chapter 2, the appearance of entertainment culture from the work is examined with division into two categories of 'consumptive leisure activities inside and outside the house' and 'hobbies of collecting and growing luxury items'. And in chapter 3, based on what was dealt with in chapter 2, entertainment culture from Sohyeonseongrok is understood to be significant, owing to its internal function which gives various colors by strongly exposing worldly desire and taste at the back of ideology.

With an external focus on the work, unlike existing arguments that interest in extravagance and pleasure raised its head only after 18th century in Choseon society, the novel gets its significance from the fact that it clearly shows the desire of upper classes of mid-late 17th century to enjoy extravagance and pleasure without being bound to frugality.

Key Words Sohyeonseongrok, Entertainment Culture, play, hobby, taste, luxury, frugality, culture in a transition period, desire

논문투고일 : 2015. 4. 30

심사완료일 : 2015. 6. 9

게재확정일 : 2015. 6. 9

